



“I don’t know how many pairs of shoes I actually possess,” confesses Nida with a coy smile, admitting her field of study is also a giddy passion. One of the 12 students currently undertaking studies at Cercal, the Centro Emiliano Romagnola Calzature — the Emilia-Romagna Center for Footwear — this budding shoe designer from Turkey is putting her love to the test and learning how to actually craft the objects of her desire.

Located at San Mauro Pascoli, a low-key industrial district a short distance from Italy’s Adriatic Sea, the school works in close contact with footwear producers from across the country. “We make it a priority to keep a finger on the pulse of what’s happening in industry and trends,” explains Serena Musolesi, the school’s director. And a winning highlight of the courses is guaranteed placement for a three-month long internship in the sector. “Between 60 to 80% of these result in full-time employment,” says Musolesi.

The school opened its doors in 1984, the brainchild of innovative footwear and fashion kingpin Sergio Rossi, who began working with his father, a shoemaker, as a child in San Mauro Pascoli. The mod-



# *If the* Shoe Fits

## 구두 디자이너의 등용문, 체르칼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로마냐에 위치한 체르칼 신발 학교.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이 명품 구두의 본고장을 찾아 모여든 이 학교는 신발 제작에 관한 모든 비전(秘典)을 날날이 전수하는 것은 물론 기업 인턴십 같은 산학 연계 과정도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

Italy is synonymous with fashion shoes. Drawing aspiring designers and creative artisans from the four corners of the globe, Cercal footwear school in Italy’s Emilia-Romagna region gives students a thorough A to Z grounding in trade secr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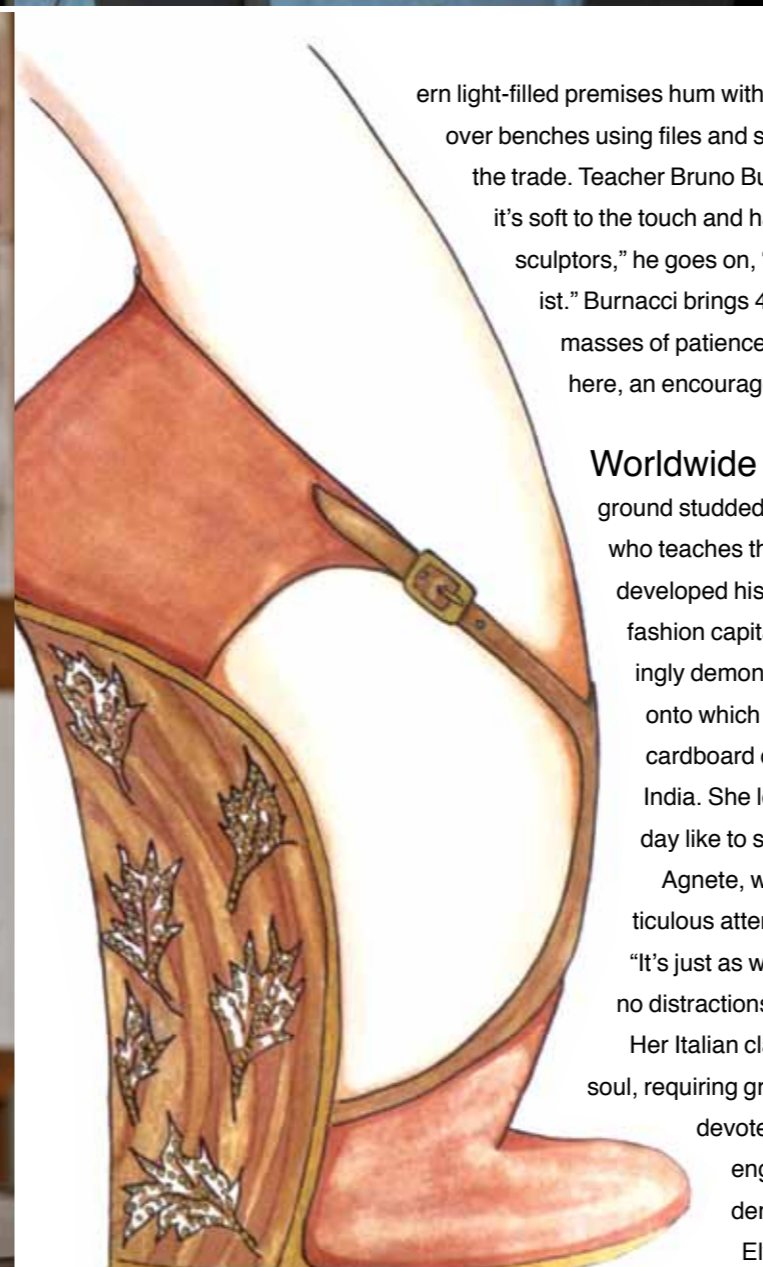


“사실 저도 제 신발이 전부 몇 켤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터키에서 온 유학생 니다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니다는 현재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로마냐 주 산마우로파스콜리에 위치한 체르칼 신발 학교 학생이다. 예비 구두 디자이너답게 이곳에서 신발을 만들며 열정과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체르칼 신발 학교는 1984년 세계적인 구두 디자이너 세르지오 로시가 세운 곳이다. 학교는 이탈리아의 다양한 제화 브랜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명성을 얻었는데, 교육 과정 중 관련 기업에서 3개월간 인턴십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졸업생의 60~80 퍼센트는 인턴십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요. 무엇보다 학교 교육을 통해 업계 동향과 트렌드를 정확히 짚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이사인 세레나 무솔레치의 설명이다.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건물에 밝은 조명이 비치는 가운데 강의실 곳곳에서 창작 열기가 넘쳐났다. 실습실에서는 하얀 실습복을 입은 학생들이 작업대 앞에 몸을 숙인 채 줄톱과 사포로 나무를 깎아 발 모형을 만들고 있었다. ‘라스트’라고 부르는 신발의 기본 틀이었다. 강사 브루노 부르나치는 라스트를 꼭 서나무로 만들어야 질감이 부드럽고 나뭇결이 자갈하지 않아 톱질할 때 걸리는 것이 없으며 말을 이었다. “학생들은 모두 조각가가 돼야 합니다. 더불어 스타일리스트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혜안을 갖춰야 하지요.” 부르나치의 설명을 듣고 나니 지난 40년간 업계에서 축적해 온 그의 노하우와 식지 않는 열정이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다.

**다채로운 신발 세계** 신발을 디자인할 때 사용하는 발 모형 ‘라스트’. 학생들은 나무를 직접 다듬어 라스트를 만든다. 학생의 디자인 작품(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학생이 그린 구두 스케치, 신발 본 제작실, 캐드 실습실(오른쪽 페이지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Foot Fashion** Wood and plastic lasts are used to design the shoe (top left and right). A shoe model created by a student (right). (Opposite, clockwise from top left) the pattern lab; the CAD lab; a student sketch.



ern light-filled premises hum with activity. In a workshop students clad in white lab coats are bent over benches using files and sandpaper to shape a wood model of a foot — known as a “last” in the trade. Teacher Bruno Burnacci explains that it needs to be made of hornbeam, because it’s soft to the touch and has few veins to interfere with the modeling. “The students are sculptors,” he goes on, “and they need to be able to interpret the idea created by the stylist.” Burnacci brings 40 years of expertise and undying passion to this job, along with masses of patience that manifest as he moves among his charges, offering a word here, an encouragement and suggestion there.

**Worldwide Glamor** All the teachers at Cercal have a dazzling background studded with the top names in Italian fashion footwear. Dario Colautti, who teaches the next stage in shoe crafting — namely pattern making — has developed his talent up and down the Italian peninsula, from Sicily to Milan, the fashion capital. Using a plastic mold of the original wooden last, he painstakingly demonstrates the precision craft of applying wide paper-based tape onto which the shoe shape can be drawn, and then transferred to a light cardboard cut-out. This is the lesson most beloved by Vidya, who hails from India. She loves the hands-on experience the course offers and would one day like to start up her own shoe business at home.

Agnete, who defines herself as Danish-American, is fascinated by the meticulous attention to detail of this profession and the seriousness demanded. “It’s just as well,” she recounts, “that San Mauro Pascoli is a small village with no distractions as we have masses of homework every evening.”

Her Italian classmate Francesco declares that the job takes over body and soul, requiring great passion and commitment, which he’s more than willing to devote, after spending two aimless years at university doing biomedical engineering. The look of contentment on his face as he sketches is a demonstration that he’s found what he wants.

Elvira from Greece already has professional experience in both






**신발 제작의 모든 것** 체르칼의 교수진은 모두 이탈리아에서 손꼽히는 제화 브랜드에서 경력을 쌓은 이들이다. 시칠리아 섬에서 밀라노까지 이탈리아 전역을 돌며 실력을 쌓은 다리오 콜라우티는 이곳에서 신발 본 제작을 가르친다. 그는 학생들에게 직접 시범을 보이기 위해 라스트의 원형인 플라스틱 주형 위에 종이 테이프를 세심하게 붙였다. 이렇듯 꼼꼼하게 바른 종이 테이프에 원하는 디자인을 그린 다음 그 모양을 뜯어 마분지에 붙이고 그대로 베껴 잘라 낸다. 인도에서 온 유학생 비드야는 구체적으로 신발 모양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즐겁다며 이 수업을 가장 좋아하는 시간으로 꼽았다. 덴마크계 미국인이라고 자기 소개를 한 아그네트는 사소한 디테일 하나에도 꼼꼼하고 진지한 자세가 필요한 신발 제작 공정에 매료됐다고 한다. “이곳 산마우로파스콜리는 워낙 작은 마을이라 한눈팔 것이 없어요. 과제가 많아 걱정했는데, 작업에만 집중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에요.”

이탈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코는 신발을 만드는 공정이 몸과 마음을 압도하는 매력적인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대학에서 생체공학을 전공했지만, 별다른 목표 의식을 갖지 못하던 중 신발 디자인의 세계를 접하게 되었다며 뿌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리스에서 온 엘비라는 밀라노와 파리에서 이미 디자이너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하지만 체르칼 신발 학교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제작 기술을 체득했고, 디자인 실력뿐만 아니라 제작 기술까지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꿈에 가까워졌다고 만족해했다. “나무 라스트를 이용한 실습 수업은 정말 유용했어요. 디자인을 스케치할 때 발의 부피감과 라인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리게 됐거든요.” 엘비라의 말이다.


손으로 그린 디자인 스케치, 가위로 잘라낸 마분지 본과 함께 제작 공정에서 필요한 것이 또 있다. 바로 3D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밀그림 작업, 즉 캐드(CAD)다. 캐드의 귀재 로베르토 콤보는 신발의 소재와 색상 선택, 신발 본 제작은 물론 디자인 수정과 변형까지 모든 과정을 마우스 하나로 완성한다. 물론 이 과정을 처음 접하면 복잡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춰 차근차근 가르치는데 집중하고 있다. 업계에선 아직까지 시간과 비용을 생각했을 때, 손으로 작업하는 걸 더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경향은 언젠게 바뀔 수 있는 법. 체르칼 신발 학교의 학생들은 늘 준비된 자세로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있다.

신발 한 켤레를 만들기 위해 몇 년을 투자해 가며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체르칼의 학생들은 오늘도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실력으로 무장한 채 세계 패션 무대에 진입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글 질리언 프라이스 사진 카를로 모루치오



Milan and Paris, but she appreciates the technical experience she has gained here in San Mauro Pascoli, which will complete the picture for her. “Working on the lasts is extremely helpful in understanding volumes and lines when you’re sketching,” she says.

Side by side with the hand-drawn designs and cardboard cut-outs comes 3D computer-aided drafting, or CAD. Whizz kid Roberto Combo puts the class through their technological paces, flashing up fabrics and colors and producing flat patterns, not to mention modifications and corrections at the click of a mouse. He was a student himself at Cercal once, and was thrilled to be asked to stay on to teach. Curiously, a seminar to examine the usefulness of such a technique in the industry, as compared to hand-drawn designs, showed that for the time being the latter is preferable in terms of timing and costs. This, however, may easily change in the future and the Cercal students will certainly be ready to cope.

Italy is the undisputed world leader in fashion shoes, and the shoe design profession is potentially lucrative. Though it takes years to develop the skills, a hugely talented group is being prepared here at Cercal to enter the international stage.  By Gillian Price Photographs by Carlo Morucchio

**장인 정신을 배우는 시간** 신발 모형 제작 공정. 이곳에선 최고의 신발 전문가들이 학생들에게 제작 기술을 가르친다. 신발 모형, 신발 본 제작실, 체르칼 신발 학교 출입구, 학생이 그린 구두 스케치(왼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Italian Couture** (Clockwise from opposite top left) A last in progress; students learn from top experts such as Bruno Burnacci; shoe models; the pattern lab; an entrance of Cercal; a student sketch.